

기업인 방북 현황 및 평가

- 1994. 11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

1. 방북 현황

1) 방북 신청 · 승인 현황

○ 개요

1994년 11월 8일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1996년 10월 말까지 55 개 기업, 381 명(83 건)이 신청하여 39 개 기업, 268 명(65 건)이 승인을 받아, 이 가운데 34 개 기업, 208 명(52 건)이 방북하였음.

○ 방북 신청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합계
신청	38 건 (14 개사 211 명)	38 건 (34 개사 82 명)	7 건 (7 개사 38 명)	83 건 (55 개사 331 명)
승인	32 건 (12 개사 183 명)	29 건 (22 개사 61 명)	4 건 (5 개사 24 명)	65 건 (39 개사 268 명)

○ 방북 성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합계
신청	32 건 (12 개사 183 명)	29 건 (22 개사 61 명)	4 건 (5 개사 24 명)	65 건 (39 개사 268 명)
승인	26 건 (11 개사 137 명)	23 건 (20 개사 49 명)	3 건 (3 개사 22 명)	52 건 (34 개사 208 명)

2) 방북 활동 관련 내역

○ 월별 방북 인원

- 1994년 12월에 방북을 개시한 이후 동기간 중 34 개사 208 명이 방북하였음.
- 월평균 1.5 개 기업 9 명 꼴

※ 1995년 1~2월, 6~7월, 11월 및 1996년 8~9월에 다소 집중되었고, 1995년 4~5월과 1995년 12월~1996년 2월에 방북 사례가 저조한 것은 평양축전행사 등 시기적 배경과 북한의 추운 날씨로 실질적인 투자 조사 활동이 어려운 점 등에 기인.

월	1994. 12	1995.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업	1	4	3	2			8	3	1	2	1	5	1
인원	12	23	9	3			21	17	6	3	5	24	1
건수	1	4	2	1			6	3	1	2	1	6	1

월	1996. 1	2	3	4	5	6	7	8	9	10	합계
기업		1	1		3	2	2	5	6		51
인원		9	7		5	21	4	25	13		208
건수		2	3		3	3	2	5	6		52

○ 방북 건별 인원

총 52 건에 208 명의 인원이 방북함으로써 1 회 방북 건당 인원은 4 명임.

인원	13 명	12 명	11 명	9 명	8 명	7 명	6 명	5 명	4 명	3 명	2 명	1 명	계
건수	1	1	1	3	2		6	4	4	6	14	10	52

○ 기업별 방북 횟수

대부분의 기업이 1 회 방북하였으며, 2 회에 걸쳐 방북한 기업은 6 개임.

횟수	1회	2회	3회	15회	계
기업수	26	6	1	1	34

○ 체류 일수별 방북 인원

체류 일수	3	4	5	6	7	8	11	12	13	14	15	18	25	36	39	43	47	50	60	65
인원	4	14	39	33	18	45	4	5	2	2	1	4	2	1	3	1	3	11	4	12
건수	2	3	12	5	3	16	3	3	1	2	1	2	1	1	1	1	2	4	2	2

○ 방북 경로

초기 방북의 경우는 북경-평양간의 항공편을 이용하였으나, 지금까지 대부분 도문-남양간의 육로 입북 사례가 많으며, 최근에는 훈춘(권하)-원정간 무사증 입북 사례가 일부 있음.

경로	북경-평양	도문-남양-나진·선봉	북경-나진·선봉	훈춘(권하)-원정-나진·선봉	계
건수	30 건	14 건	5 건	3 건	52 건
인원	105 명	54 명	44 명	5 명	208 명

○ 방북 지역

방문 목적지로서는 평양지역과 나진·선봉지역이 대종을 이루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타지역 경유 등으로 북한내 2 개 지역 이상을 방문하기도 하였음.

○ 체류 장소(숙소)

평양지역을 방문할 경우, 서재골초대소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나진·선봉지역 방문시에는 전부 비파초대소에서 숙박

방문 지역	숙소명	기업수 및 인원
평양	문수리초대소	3 개 기업 69 명
	서재골초대소	8 개 기업 36 명
	고려호텔	6 개 기업 12 명
나진·선봉	비파초대소	23 개 기업 103 명
청진	고말산초대소	1 개 기업 12 명

※ 금강산(금강산호텔 4 개 기업, 11 명), 묘향산(향산호텔 4 개 기업, 7 명)

2. 주요 협의 내용

대기업의 경우, 주로 투자 관련 사업 및 위탁 가공 사업 분야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반면, 중소기업은 섬유 의류 위탁 가공 및 물자 교역 위주로 협의

구분	섬유 신발	건설	광물	식음료	신발	농수산물	해운	전자	통신	시멘트
대기업	5	4	2	2	1	1		2	2	2
중소기업	4	2	4	3	3	3	3	1		
기타		2								
계	9	8	6	5	4	4	3	3	2	2

구분	공산품	생수	화차·컨테이너	석유화학	철강	광고	기타	합계
대기업	2		1	1	1			26
중소기업		2				1	4	30
기타							1	3
계	2	2	1	1	1	1	5	59

3. 평가

- 초청장은 방북 지역을 나진·선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평양 등 타 지역은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 1996년도의 방북 특징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위주의 방북이 증가되어 방북 기업수가 총 15 개사 가운데 10 개사에 이룸(대기업: 3 개사, 기타: 2 개사).
 - 중소기업인·관계 전문가·기술자의 방북이 활발히 이루어져 나진·선봉지역 투자 여건 정보 제공 및 기술 용역 제공 등으로 북한 진출의 새로운 계기 마련
- 다만, 남한 기업인에 대한 북한의 선별적·자의적 초청 및 남북한 왕래 관련 제도적 장치 미비로 방북에 많은 시간과 경비 소요
 - 북한이 판문점을 통한 남북간 직접 왕래를 거부함으로써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

(자료: 통일원)

옥고를 기다립니다

1. 본지는 북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학술 논문이나 시사성있는 글로서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2. 보내신 글은 본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본 연구원의 동의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
4.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 의견도 실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통일경제」에 실린 글들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관해 제언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원고지 양식으로 지회 「통일경제」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 소정의 고료와 월간 「통일경제」 1부를 증정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 110-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센터」

TEL : 737~4005(교 765) FAX : 730~1771

원고 집필 기준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시사논단 : 70매 내외
 - 특별기획 : 40매 내외
 - 초점 : 20매 이하
 - 독자의견 : 10매 이하
-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月刊 「統一經濟」 회원 가입 안내

- ▶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737~4005(교 344) FAX : 733~6389

- ▶ 연간 회비는 60,000원입니다
외환은행 061-13-40879-9 예금주 : 現代經濟社會研究院